DuPont, 화학에서 미래산업 발굴!

전세계에서 산업용 소재 1800종 생산 ... 생명공학에서도 경쟁력 도모

다국적 화학기업인 DuPont이 컨버전스 경영기법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2년 창립 200주년을 맞은 Dupont은 현재 전세계 약 70개국에 진출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무려 1800종에 이르는 각종 산업용 소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만 해도 <케블라>, <노맥스> 등 고기능성 섬유와 탄성섬유인 <라이크라>, 부직포 <타이벡>, 인조대리석 <코리안>, 체온 상승 때 땀을 배출시키는 섬유 <쿨맥스> 등 다양하다.

DuPont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 <해즈잇(HAS IT)>을 최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이 프로그램에 전세계에 걸쳐 4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3년에 걸쳐 2억달러를 투자해 주력 제품인 <라이크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DuPont은 1977년 처음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1억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세웠다.

현재 이천과 울산에 있는 리스톤(포토 레지스터 필름), 뷰타사이트(안전유리 접합용 필름), 엔지니어 폴리머 공장은 국제 품질인증인 ISO 9002, ISO 14000을 획득했다.

듀폰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주력 업종인 섬유를 비롯해 특수화학, 불소화학, 농약, 건축, 생활용품, 포장재, 산업용 고분자, 자동차·전자기기 등 각종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DuPont은 2002년 창사 200주년을 맞아 <인류를 위한 과학의 혜택>이라는 구호 아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축적해온 화학, 생물학, 공학기술을 집대성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16>